

다문화이름,
다문화포라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o@naver.com

어느 날 전철에서 나란히 두 대의 유모차를 끌고 오른 젊은 외국여인들을 보았다. 외국인 만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금발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가는 듯한 이 두 여인은 전철 안에 탄 사람들에게 흥밋거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년 부인들이 어린 아기를 보고 싶어서 고개를 길게 빼고 미소를 짓거나 급기야 이들에게 다가와 한국말로 아기가 예쁘다고 말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무어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덧 우리 사회가 글로벌 사회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도시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세계경제체제에 걸맞게 초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예 근무하는 외국인과 가족, 무수한 영어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원어민 강사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군과 그 가족,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불법 입국한 동남아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네 젊은 여인네들이 기피하는 농촌에 시집온 먼 나라 여인들, 각양각색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도 이미 다문화사회,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죽이거나, 죽임당하거나

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야겠다. 차학경이라는 예술가가 있다. 그의 그림도 빼어나지만 그의 반경은 그림, 문학, 예술, 영화 전반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외부의 힘의 작용으로 삶의 터에서 뿌리 뽑혀 내쫓긴 사람들을 가리킨다. 본래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종략)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쫓겨난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산의 백성으로 확산되었다.

으로 뺏어있었고, 언어능력이 뛰어나 몇 권의 기념비적인 책도 출간했다. 대표작인 『디테』라는 책은 난해하지만,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포스트모던, 다문화사회, 소수민족, 페미니즘이 직시된 명저로 꼽힌다.

차학경은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강행한 부모를 따라 12살에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교포2세대. 재능있는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 입학, 비교문학과 미술을 전공했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영화이론에 심취해 주로 퍼포먼스·비디오·영상작업을 선보인 개념미술가로 활동했다. 백남준에 비견될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녀의 모든 작업은 그녀가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31세 이전에 이룬 것이다. 꽃다운 그녀는 결혼한 바로 그해, 남편을 만나러 길을 나서다 거리에서 강간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황망하고 기가 막힌 죽음이다. 어느 죽음인들 황망하지 않겠나마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재능있는 천재예술가가 이름없는 부랑자의 폭력으로 절멸

했고 우리는 어이없이 그를 잃었다.

그의 허망한 죽음은 지난 4월 말에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에서의 총기사고로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조승희와 비교된다. 경악할만한 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조승희는 그 자신도 자살하고 만다. 그의 죽음은 그가 죽인 죄 없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비할 바 아니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산민들이 겪는 켜켜이 쌓인 사회의 불합리와 소외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모두 슬픈 디아스포라의 초상이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외부의 힘의 작용으로 삶의 터에서 뿌리 뽑혀 내쫓긴 사람들을 가리킨다. 본래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쫓겨난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산의 백성’으로 확산되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언제나 그게 마음에 걸린다. (중략) 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잡아매두는 끈들은 그 어떤 것도 인공적이고 불투명한 것이다. 내가 ‘죽음’을 향해 몸을 내밀었을 때 그 끈들이 나를 꼭 잡아줄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내 쪽에서 손에 쥐고 있는 끈을 살짝 놓으면 그걸로 그만일 것이다.”

었다. 이렇게 확대된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제3세계 사람들이 제1세계로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나, 약소국 국민이 강대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고향 혹은 고국으로부터의 강제적 이산(forced dispersal)이나 지리적 이동(displacement)을 겪은 사람들이다. 차학경이나 조승희 역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고향에서 떠밀리고 희망을 찾아 타지로 떠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그 땅은 빛나는 천재성을 가진 건전한 시민에게나, 왕따로 살았던 말없는 청년에게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겨주었다.



디아스포라의 슬픔

디아스포라의 죽음은 유대인 학살처럼 권력의 폭력이나 홀로코스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배출하는 사례들도 많다. 사춘기에 접어든 예민한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한 이들이 맞닥뜨린 언어의 충격, 소수인종으로 겪어야 했던

‘다름’의 경험, 완전하게 미국인도 아닌,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그 사이 어디엔가’ 존재해야 했던 상황은 그들에게 백인과 유색인, 강대국과 약소국, 중심과 주변,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으리라. 물론 하인즈 워드와 같은 신화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통이 없었을까? 가난과 인종적 차별을 감내하며 하루에 3가지 직장을 다녔던 어머니 밑에서 그가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란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이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언제나 그게 마음에 걸린다. (중략)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잡아매두는 끈들은 그 어떤 것도 인공적이고 불투명한 것이다. 내가 ‘죽음’을 향해 몸을 내밀었을 때 그 끈들이 나를 꼭 잡아줄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내 쪽에서 손에 쥐고 있는 끈을 살짝 놓으면 그걸로 그만일 것이다.”

재일 한국인 서경식 교수는 『디아스포라 기행』에서 부유하는 이산민들의 슬픔을 그렸다. 그는 자신의 삶의 조건인 디아스포라의 고통과 현실을 누



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경식 교수에 의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에는 슬픔이 배여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린 약소민족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세의 침략에 짓밟힌 약소민족의 힘 없는 민중들의 슬픔이 담긴 뜻이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덧붙인다.

“‘이제 됐어, 그만 끝을 벌까’ 생각하면서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몸을 내밀려 할 때 확 뒷머리를 잡아채 이편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 하나는, 의심할 바 없이 ‘국민’이라는 관념이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고향과 그곳의 자연,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 조상이 남겨준 유형무형의 재산,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해지는 혈통,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되는 ‘국민’의 전통, 고유의 역사와 문화,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해보면 근거가 희박한 이 관념들이 단단히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국민’이다.

여기서, 죽으면 가까운 이들에게 죄송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엸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가족’, ‘고향’, ‘모교’, ‘우리 회사’, ‘우리 마을’ 등을 거쳐, ‘국가’나 ‘국민’에 결합된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국민’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회수되고 마는가. 그 연속성은 논리성을 결여한다. 그러나 아무리 비논리적이라도 당사자들은 꿈쩍도 안 한다. 오히려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이 아닌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이며, 그걸 모르는 자는 ‘국민’이 아니다. 무적의 논법이 아닌가.”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이다. 세계경제체제에 힘입어 자본, 사람, 물건, 정보의 대량 유통이 이루어지고 격동의 지구촌에서 파생된 이민, 난민, 여행 등의 인구이동형상이 크게 늘어나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의 위치』 서론에서 호미 바바는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로 발생한 대규모 이주는 식민적, 후기 식민적 근현대성(modernity)의 근간이 되는 조건을 형성했으며, 이것은 근현대 주체들로 하여금 ‘고향과 세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하도록 몰아붙인다고 했다. 바바에게 근현대성은 고향(home)에서의 친숙한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는(unhomely) 역사적 조건이다. 바바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생겨나기

좋은 사회란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건전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다. 성숙한 사회는 차별과 배제의 체제가 아니라 이해와 공존의 체제인 까닭이다. 우리 가족에게 그러하듯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마련인 균열과 틈으로부터 친숙성/낯섬, 고향/타지, 국민/민족성과 주체성 등의 의미 역시 끊임없이 재정의 된다고 했다.



이산의 시대, 유목민의 시대

20세기 후반부터 역사적 맥락에서 상이한 여러 집단의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주체성, 정체성 영역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의 굴곡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떠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규모도 적지 않다. 재일한국인, 중국의 조선족, 스탈린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구소련의 고려인(카레이스키), 1960년대 당시 서독정부가 받아들인 이주 노동자의 자손, 게다가 정부가 권장한 국제입양의 결과 20만 명을 넘어선 해외 입양자들, 또 천차만별이지만 미국에 자리잡은 200만 명 이상의 코리언 아메리칸... 이 모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숫자는 67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더구나 직장이나 유학으로 인해 미국 뉴욕과 오클랜드,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세계각지에 퍼져있는 한국인들을 포함하면 거의 한집에

한들은 외국에 나가서 사는 친인척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유랑민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순수한 하나의 기원이나 뿌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어떠한가. 앞서 말한 다양각색의 외국인인을 비롯해서 2010년에는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딸린 가족들을 감안하면 이주 인구는 2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낯선 이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타자의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좋은 사회란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건전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다. 성숙한 사회는 차별과 배제의 체제가 아니라 이해와 공존의 체제인 까닭이다. 우리 가족에게 그러하듯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2007)